신제품

씨지코리아 & 앱손

씨지코리아 캘리브레이션 솔루션 EIZO, EPSON & X-Rite CMS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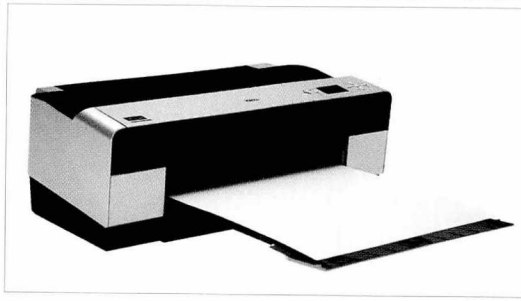
씨지코리아(대표 이정준, www.cgkorea.co.kr)와 엡손코리아(대표 히라이데 슈운지, www.epson.co.kr)는 지난 1월 26일 공동으로 (주)태일시스템 CMS 교육장에서 EIZO, Epson & X-Rite CMS 솔루션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대안으로 EIZO모니터 ColorEdge CG, CE시리즈와 엡손 R2400, 3800 프린터 그리고 X-RITE사의 Monaco OPTIX xr 측색기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최적화해 캘리브레이션에 적용하는 CMS(Color Management System) 시연을 했다. 이날 발표는 씨지코리아 장덕수 기술영업부 선임과 한국엡손주식회사의 김성연 과장, 김영배 차장이 함께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새롭게 각광받는 CMS 솔루션

인쇄업계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컴퓨터상의 편집과 인쇄시의 색상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색상차이는 주변 조명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종이나, 잉크의 종류, 또는 모니터 자체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서 이를 통일시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색상 차이를 줄이고, 편집과 동일한 출력물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인쇄업계 당연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를 캘리브레이션 즉, CMS(Color Management System)라고 한다.

간단한 모니터 조정에서부터 시작하는 CMS

캘리브레이션의 시작은 모니터 조정에서 시작한다. 모니터는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출력물을 보는 '제2의 눈'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이런 모니터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쓴다. 올바른 모니터 조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어도비 포토샵의 '어도비 감마'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맞춰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람의 눈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편집용으로 판매되는 모니터를 구입해, 측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색온도, 감마, 밝기 등을 맞출 수 있지만, 각 장비가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나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도 프린터에서 색상을 재현



2 | 1
3 |
4 | 5

1 세미나 전경
2 ColorEdge CG19
3 ColorEdge CG210-N
4 ColorEdge CG211
5 엡손 3800

하지 못하거나, 종이에서 그 색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비의 궁합이 무엇보다도 중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지코리아는 엡손, X-Rite와 함께 서로의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CMS 솔루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번에 발표한 제품군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해 최적의 조합을 찾은 것이다. 물론, 고가의 장비가 대부분이어서 가격대가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급 전문가들에게는 이만한 제품구성도 드물 것 같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을 살펴보면, 프린터의 경우에는 초정밀 헤드, 2.3Dmax 종이, 울트라 크롬 K3 기술을 이용한 안료가 사용되고, 모니터의 경우에는 색온도, 색재현력, 감마값, 화면불균형에 따른 보정기술인 EIZO DUE(Digital Uniformity Equalizer) 기술이 사용된다. DUE는 픽셀 하나하나마다 색의 값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밖에도 모니터의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측정기는 밝기, 컬러 온도, 감마값 등을 측정해서 정밀한 수치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컬러관리가 가능하고, 같은 조명광 아래서 모니터와 출력물의 색이 똑같게 된다.

적합한 조합으로 손쉬운 CMS 가능

무엇보다도 EIZO, EPSON & X-Rite의 조합을 이용하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이다. 우선 이 솔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각 장비마다 고유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조합은 그들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만 유효한 것이다. 장덕수 차장은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해도 무리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조합을 추천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정확한 색의 재현을 원한다면, 한번쯤 고려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이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